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1) 광주지하철 예술무대

# 오늘도 '문화 지하철'은 씩씩 달립니다

광주 지하철 역사 곳곳은 언제나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다. 역사 내 메트로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과 시낭송은 승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지난 2004년 개통 이후부터 '문화가 흐르는 지하철'을 표방하며 상무역, 농성역, 양동시장역, 금남로4가역, 남광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하철이 이처럼 '문화 지하철'의 명성을 얻게 된 데는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컸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무대에 올려며 끼를 발산하고 있다. 문화 나눔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긍심과 함께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무대가 있다는 사실에 참가자들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선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음향 시설과 장소 등을 제공, 관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매년 초 참가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08년에는 17개 단체가 '광주지하철 예술무대'를 꾸려가고 있다.

## 시낭송, 색소폰 연주 등 다채

바빠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가는 승객들을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안내하는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는 지난 2001년 전국의 온라인 문학동아리 5개 단체가 결합해 만든 단체다.

사이버문학인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상무역사에서 '무진주 문화마당'을 개최해 오고 있는 예술무대의 터줏대감이다. 가장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은 문학작품 낭송으로 강소천씨 등 유명 문인과 회원들이 자작시와 유명 작가의 시와 수필 등을 낭독하며 그림과 어우러진 시화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무용과 음악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사이버문학인협회는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관전터미널, 공항, 광주역 등 광주의 관문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 '문화수도'의 위상을 알린다는 야무진 포부를 갖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메트로문화센터' 강사와 수강생들 역시 예술무대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다. 현재 메트로센터에는 통기타, 압화공예 등 모두 40여 개 강좌가 개설중이며 수강생은 250명 정도다.

문화센터에서 통기타를 가르치는 김지니씨와 수강생들은 매일 한차례씩 '지니로니'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역시 문화센터에서 우리 춤을 가르치는 최영선씨와 수강생들도 수시로 공연을 열고 있다. 또 현재 상무역사에서는 압화공예, 그림, 드레스 인형 등 회원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등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다.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

수관 국악문화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빛소리국악예술단'은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차례씩 국악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요양원 등 불우시설 등을 방문, 문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여 명의 단원들은 관소리, 사물놀이, 태평소, 무용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은 물론 색소폰과 통기타가 어우러지는 퓨전 무대에 마련하고 있다.

## 지역예술인·동호회 등 무료 봉사

색소폰 연주회는 승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현재 김장생씨가 이끄는 'JS 색소폰 코러스'와 정준선씨가 대표로 있는 '빛고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무대에 서고 있다.

그밖에 '생명나눔사랑회'의 자선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전하고 있다. 또 매년 신명난 관을 벌이는 놀이패 '만월',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를 펼쳐보이는 'J 매직', '황선복과 소리 내는 사람들' 등도 정기적으로 승객들과 만나고 있다.

그밖에 하남농협주부대학의 고전춤, 광주 상무 1동 풍물패, 새벽이슬교회 예술단, 북구청소년수련원 등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인들도 지하철 무대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송현주씨는 "지하철 예술무대를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참가자들 덕분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예술인들도 자신들의 기량을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를 가질 수 있어 참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 나일환 회장은 "문학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지하철 공연 등을 통해 문화수도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메·트·로 축제

26~27일 상무역 등 지하철역 일대

광주 지하철 축제인 제5회 메트로 축제가 오는 26~27일 상무역 등 지하철역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산 Promise'를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날에는 '대중교통 사랑메아리'(오후 5시)가 마련돼 지역 대중가수의 축하무대를 비롯해 JS색소폰, 밸리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 메트로축제 인기행사인 '유아예술경연대회'(오후 7시)가 이어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아마추어 댄스 경연대회'(오전 10시)와 '재활용품 패션쇼'(오후 5시)가 열린다.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기후변화와 대중교통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라디오엔터링 출발'(오후 4시)이 스태틱과 평동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외에도 '에너지 이동 박물관 전시', '아름다운 시화전'과 함께 도예·토퍼어리·천연비누를 만들어보는 '만들기체험', '외국음식 문화체험', '대체의학 체험'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상무역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온 가족 참여해 대중교통 이용을 선포하는 '약속' 선언식(오후 6시 40분)과 인기 가수 현숙 등 대중 가수들의 축하무대(오후 7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www.gwangjusubway.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04-803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통기타그림 '지니로니'



'광주지하철 예술무대' 공연에 나선 '빛고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멋진 색소폰 연주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의 '무진주 문화마당'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신혼여행 · 가족여행 · 개별여행 · 골프여행은 편리한 무안공항에서 출발!!

## 무안국제공항출발

**■ 동양항공(주) 항공편이 전세계**

● 운항기준 및 출발시간

- 2차 출발: 2008. 10. 12 - 2008. 12. 10 (토) 10:00
- 제주 직항편(2008년 10월 12일 10:00 출발)
- 제주 직항편(2008년 12월 10일 10:00 출발)
- 3차 출발: 2008. 12. 13 - 2008. 01. 10 (토) 10:00
- 제주 직항편(2008년 12월 13일 10:00 출발)
- 제주 직항편(2009년 01월 10일 10:00 출발)

■ 기종: A320, A321, A323X

■ 허니문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면 좋은점

- 1. 국내선 최저요금
- 2. 시종일관 2.1kg의 가벼운 캐리어 서비스
- 3. 공항 내 무료 주차